



셋노란 산수유에 파묻힌 산골마을. 경칩 지나 눈 내린 봄에도 어김없이 산수유 꽃이 피었다. 노랗게 한 무리로 구례군 산동면 현천마을을 뒤덮었다. 꽃 무더기에 파묻힌 동네는 보리밭과 대나무 숲에 둘러싸여 있다. 노랑과 초록의 원시적인 아름다움이다. 이 일대에서 18일 시작된 산수유꽃 축제는 21일까지 계속 된다. /구례 현천마을=위직기자 jrwi@kwangju.co.kr

이용섭·정동채, 강운태 맹공 뜨거워지는 광주시장 후보 경선

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강운태·이용섭 의원, 정동채 전 장관이 연일 날카롭게 설전을 벌이고 있다. 이용섭 의원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강 의원을 상대로 “변칙과 술수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”고 비판한 데 이어 19일에는 이 의원 측 대변인이 강 의원 측의 당원 여론조사 결과에 위협소지가 있다며 “2라운드” 공방을 이어갔다. 이 의원 측 윤환식 대변인은 “강 의원(측)이 최근 광주시의회 기자회견장에서 배포한 ‘민주당 광주 우대당원+대외원 여론조사 결과’ 문건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산하고 있다.”면서 “중앙당에서만 열람이

가능할 정도로 대외비로 취급되는 명부를 어떻게 확보했는지 진실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.”라고 말했다. 윤 대변인은 “만약 당원 명단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체 여론 조사를 했다면 이는 명백한 허위 여론조사가 될 수 있다.”라며 “선거관위가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”고 밝혔다. 정동채 예비후보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“강 의원은 당원 여론조사 결과 유포에 대해 중앙당과 광주시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”고 가세했다. 전날 반응을 자제하던 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“상대방을 자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

않다. 아까는 후배인데 이의원이 이제는 자중했으면 한다.”라고 말했다. 그는 또 “당 후보가 당 대표를 만나는 것이 무슨 문제냐? 당심(黨心)을 말한 것은 상대방을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당 대표의 뜻을 (기자들에게) 전달하려 한 것뿐인데 여기에 시비를 걸어서는 안 된다.”라고 반박했다. 한편 이날 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의 오영식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“광주시장 경선은 후보자의 적합·부적합 여부를 먼저 가린 뒤 시민공천배심원제와 당원 전수조사 결과를 각 50%씩 적용한 경선을 실시해 후보를 결정하기로 했다”고 밝혔다. /최권일기자 cki@

울촌 2산단 2014년부터 입주

광양 경제자유구역내 892만㎡...철강·기계 특화

3조원 규모 개발계획 확정

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핵심 산업단지인 ‘울촌 2산단’에 기계·운송장비·전자전기·비금속·철강산업이 집중 육성된다. 전남도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19일 “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내 울촌 2산단의 공장 용지를 2014년부터 공급하고 기계·자동차 및 트레일러 운송장비·전자부품 및 금속가공제품 산업을 집중 유치할 것”이라고 19일 밝혔다. 울촌 2산단은 여수시 울촌면·소라면 일대 892만2천18㎡에 2020년까지 2단계로 나눠 조성되고 광양항 컨테이너 물량을 창출하는 업체들이 집중적으로 들어선다. 경제자유구역청은 앞서 국내외

350개 업체를 대상으로 입주 의향 및 입주 방법, 투자 의사 및 투자 결정 요인 등을 묻는 설문 조사를 실시, 산업 용지의 90%(199만4천㎡)에 대해 입주 수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. 1단계로는 산업 용지와 항만배후단지 등 313만3천㎡가 오는 2015년까지 우선 개발되고 나머지(578만9천18㎡)는 2020년까지 조성된다. 산업단지(379만2천658㎡)의 경우 ▲기계 및 운송장비 산업(115만5천765㎡) ▲전자·전기 부품 산업(36만416㎡) ▲금속가공제품 등 비금속 산업(29만6천913㎡) 등이 배치된다. 기계 및 운송장비 산업으로는 의료·정밀·광학기기 및 자동차·트레일러 장비업체, 전자·전자 부품 산업의 경우 전자·전기 및 컴퓨터·영상·음향업체, 비금속 산업 분야로는 금속



가공업체 등이 들어선다. 배후 인프라 시설로 상업업무시설(6만6천446㎡)과 집단에너지시설·폐기물처리시설·폐수종합처리시설 등 공공시설도 160만6천517㎡에 건설된다. 항만 용지도 크게 늘어난다. 지난 2003년 수립된 개발계획 초안(215만㎡)보다 2배 가량 늘어난 항만 부지

(512만9천360㎡)가 조성된다. 여기에 컨테이너 부두 9선석과 잡화 등 일터 이너 운송업체 및 제조업체들을 위한 물류용지(249만2천㎡)를 조성한다. 이렇게 되면 컨테이너 부두에 5만급, 일반부두에 2만급 선박을 수용할 수 있고 연간 300만TEU의 화물처리 능력을 갖추게 되면서 세계 해상 운송량 증가에 대응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. 공사에 소요될 사업비는 3조3200억원으로, 2조1천731억원의 국비로 나머지는 민관 합동개발에 의한 이른바 ‘제3섹터 방식’으로 추진된다. 전남도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이같은 울촌 2산단 세부 개발계획을 확정하고 지식경제부에 승인을 요청했다. /김지을기자 dok2000@kwangju.co.kr

광주디자인비엔날레 총감독 건축가 승효상씨



내년 9월에 열리는 제4회광주디자인비엔날레(9월 2일~10월 23일)의 총감독으로 국내 대표 건축가인 승효상(58·건축사무소 이로데 대표)씨가 선임됐다. 광주비엔날레 재단(이하 재단)은 19일 오전 광주시 용봉동 비엔날레 회의실에서 제116차 이사회를 열고, 승씨를 내년 디자인비엔날레 총감독으로 선임했다. 또 오는 5월 외국인 보조 감독을 선임해 이번 대회를 승 감독과 협업 형태로 치르도록 했다. 승 감독은 서울대 건축과를 졸업한

뒤 한국 건축의 거장 김수근 문하에서 실무를 익혔고, 지난 2002년 건축가로써 처음으로 국립현대미술관 이 선정하는 ‘올해의 작가’에 뽑혔다. 2008년에는 베니스비엔날레 건축전 한국관 커미셔너를 맡았고, 중국에 진출해 베이징 첸먼지역 30만㎡를 재개발하는 설계프로젝트를 따내는 등 국내외에서 주목받는 건축가다. 승 감독은 “디자인의 장르가 허물어지는 시대에 공예, 인테리어, 건축, 제품을 따로 분류하지 않고 총체적으로 보여줄 것”이라면서 “인간의 삶을 던질 수 있는 전시를 기획하겠다”고 밝혔다. 한편 재단은 이날 이사회를 통해 제8회광주비엔날레 총 예산을 당초 75억원에서 79억으로 늘렸다. /오광록기자 kroh@kwangju.co.kr

봄비 온 후 황사 주말 기온은 포근

낮과 봄의 길이가 같다는 ‘춘분(春分)’을 하루 앞둔 20일, 광주·전남에는 축축한 봄비가 내린 뒤 황사 바람이 불어올 것으로 예상된다. 광주지방기상청은 “20일 광주·전남지역은 곳에 따라 강한 바람과 함께 오전 한때 5mm 미만의 비가 내린 뒤 오후부터 차차 개겠다”고 19일 밝혔다. 아침 최저기온은 11도~14도, 낮 최고기온은 14도~16도 분포로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예상된다. 기상청은 또 광주·전남지역 전지역에 열린 황사가 나타날 것으로 예보했다. 휴일인 21일에는 맑겠으나 기온이 6도~7도 떨어지고, 돌풍도 예상된다.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~3도, 낮 최고기온은 8도~9도. 기상청 관계자는 “바다의 물결이 전 해상에서 2m~5m로 높게 일고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주의해야 한다”고 밝혔다. /이종행기자 golee@

세기보청기
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

세계가스타·세기보청기

1388-8489-888-222-8118